

위험수위 넘은 '방학 탈선'

유흥비 마련 성매매 협박 등 청소년 범죄 잇따라

광주 가출 청소년 급증... 범죄 표적되기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광주지역 가출 청소년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범죄와 PC방 등을 전전한다.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스스로 범죄에 가담, 절도는 물론 또래들을 납치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강력범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나 관련 기관들은 청소년 생활지도에 소홀, 탈선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광주경찰청에서는 가출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납치한 후 모텔에 감금·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알몸 동영상까지 찍어 협박한 혐의로 전모(여·18)와 이모(14·중1 중퇴) 양모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 등 4명은 지난 6월 밤 11시40분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A(13·중 2년)와 B(15·중1 중퇴) 양 등 3명을 유인한 뒤 광주시 광산구 한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하고 현금 30여만원 등을 빼앗았다. 특히 이들은 A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옷을 벗겨 휴대전화를 이용해 알몸

동영상을 찍은 후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입신 6개월째인 B양에게까지 성매매를 시키려다 B양이 지난 7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달아난 B양은 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8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동구 한 모텔에서 전양 등 4명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은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이 모텔 인근까지 왔다가 경찰이 덮치자 도주했다는 피의자 진술에 따라 이 남성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서부경찰은 가출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오모(20)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9시에 고등학교생 김모(16)군이 "광주역 앞에서 C(15)양 등 여중생 2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승용차로 납치됐다"며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오후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복 끝에 의의자 가운데 한 명인 오모(20)씨를 붙잡았으며 추궁 끝에 인근 여

관에 투숙해 있던 김모(20)씨 등 공범 2명도 함께 검거했다.

김씨 등은 광주역에서 가출한 이들 여중생을 만나 "고속버스 요금을 주겠다"고 꼬드쳐 C양 등을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가출 청소년들이 강력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가출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숫자는 ▲2006년 395명 ▲2007년 526명 ▲2008년 6월 현재 368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2년 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교사 20명으로 교외생활지도협의회를 구성, 우범지역과 가출 청소년 선도 등에 나섰다.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측은 "광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측은 처음 3명에게 승용차로 납치됐다"며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오후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복 끝에 의의자 가운데 한 명인 오모(20)씨를 붙잡았으며 추궁 끝에 인근 여



태극전사 파이팅!

이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는 8일 지하철 상무역에 '가자 베이징으로! 코리아 파이팅!'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8 베이징 올림픽 응원 게시판을 설치했다. 시민들이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교과부 '수입 최고기 홍보 공문' 광주 일선고교까지 이미 전달

홍보 실적 제출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기 관련대책 홍보협조' 공문인 광주 일선 고교에도 이미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교과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뒤 지난 4일 265명의 광주 시내 각급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으며, 이어 6일 동·서부교육청과 각 고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근거로 발송한 이 공문은 각종 회의, 워크숍, 토론회, 교육, 연수시 정부의 수입 최고기 관련 대책을 설명하라는 등의 홍보방법과 포스터, 유인물, 리

플릿, 영상매체 등 홍보수단을 적시 하고 있다. 홍보실적은 20일까지 대상기관, 일시, 장소, 인원 등을 적어 제출하도록 했다.

공문과 함께 온 첨부물에는 '학교 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시행령'과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라는 소책자도 포함됐다. 소책자에는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와 자제히 설명돼 있다.

미국산 최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홍보를 강요하는 듯한 공문을 일선 학교까지 보내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더욱 아이러니 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국산 최고기 대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광우병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달라고 요청했다"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문 접수 전인 7월 말에 영양사 및 영양교사 연수 때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했고, 일선 학교는 방학 중이라는 점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록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사무실행 : 02) 3445-0943

사무실행 : 06) 337-0571

취락이 잠 깨운 경찰에 주먹질

○40대 취락이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잠을 깨우자 함정에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8일 자신의 잠을 깨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모(41·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0시50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5호엔 행 도로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 운암지구대 소속 유모(43) 경사가 잠을 깨우자 유경사의 턱을 발로 한 차례 찼다는 것.

○경찰에서 이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잠을 자다며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경찰에게 미안할 따름"이라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문제 학생' 우리가 보듬겠습니다

광주 교사·장학사 100여명 사재 털어 9월 대안학교 설립

소위 '문제 학생'을 두고 벌어지는 학교간 기피현상이 사라지게 됐다. 광주지역 교사 등 교육 공무원 100여명이 사재를 털어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광주청소년교육원 이사장 조병희 대표(고교 교사)는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용연중학교(가칭)'를 오는 9월1일 개교를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이다.

광주청소년교육원 문병희(55) 이사장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어서 퇴학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학생들이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다니는 일이 빈번하다"며

"매년 광주 시내 중학생 900여명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연중은 기존 학교에 원籍(原籍)을 두되 최소 6개월에서 시작해 졸업 때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폐교된 광주시 동구 소재 동 지원초를 임대해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용연중의 교육과정이 학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학생이 용연중에서 최소 1학기를 다닌 뒤 원籍 학교로 복귀할 수도, 용연중에 남을 수도 있다. 교육과정은 임시 위주가 아닌 연극, 독

서탐구, 노작교육 등 체험형 인성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다.

용연중 개교를 위한 재원은 교원특별보좌제방위원으로 활동 중인 현직 교사 60여명과 장학관 및 장학사 등 교육공무원 40여명이 월 1만원씩 낸 회비로 충당했다.

익명의 독자가가 낸 7천만원을 보태 사단법인을 만들었다. 용연중의 운영이 안정 계도에 예상되면 시교육청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문 이사장은 "처음이라 쉽지 않겠지만 학교로부터 멀어진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수 적조 확산

양식장 피해 우려

여수해역에 발생한 적조가 확산하고 있어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된다. 8일 국립수산과학원 여수산산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화정면 계도에서 발생한 적조는 이날 오후 돌산읍 근내리와 자방도 앞 바다, 남면 송고 마을과 금오수도 마을 앞 바다로 확산됐다. 이 해역에서의 적조 원인생물은 코클로디나움 밀도는 ml 당 최고 160~620 개체로, 앞으로 밀도

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지난 7일 돌산 동쪽에도 5ha의 적조가 처음 출현해 예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일사량의 증가와 수온상승 등으로 적조생물의 밀도 증가 및 발생 해역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남면과 돌산을 해역의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어장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희중기자 chae@

계모 살해 40대 검거

지난 7일 오후 7시 40분경 장흥군 안양면 박모(48)씨 집 앞에서 박씨가 자신의 계모인 이모(6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이씨를 숨지게 했다.

박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최근 3년6개월 동안 요양원에서 지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 집에서 이씨와 함께 지내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집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막는 바람에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 있던 박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정흥=김용기기자 kykim@

대표: 성봉규 (법률등록번호 18-07-29)

해령법률경매

T: 062)225-2685 H.P: 011-605-7777 위치: 법원정문앞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잔액	최저가
사구	신촌동	신촌동	254/68	1억	357만
	신촌동	신촌동	188/155	1억2천	7천
	신촌동	신촌동	239/282	1억2천	1억2천
	신촌동	신촌동	270/217	1억2천	1억2천
	신촌동	신촌동	155/146	1억2천	1억2천
	신촌동	신촌동	383/259	1억2천	1억2천
	신촌동	신촌동	135/144	1억2천	1억2천
	신촌동	신촌동	228/150	1억2천	1억2천
	신촌동	신촌동	182/174	1억2천	1억2천
	신촌동	신촌동	183/180	1억2천	1억2천
남구	신촌동	신촌동	148/68	7천	425만
	신촌동	신촌동	131/144	7천	688만
	신촌동	신촌동	188/83	7천	688만
	신촌동	신촌동	155/141	7천	688만
	신촌동	신촌동	131/136	7천	688만
	신촌동	신촌동	198/152	4천	3천
	신촌동	신촌동	191/82	4천	3천
	신촌동	신촌동	118/282	2천	194만
	신촌동	신촌동	118/282	2천	194만
	신촌동	신촌동	118/282	2천	194만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1. 연수일정

구분	일정
개강일시	중주반 2008. 9. 5(금) 9:30 주말반 2008. 9. 6(토) 9:30
모집기간	2008. 7.21(월)~2008. 8.30(토)
수업기간	2008. 9. 5(금)~2009. 2.27(6개월/24주)
수강료	₩320,0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화: (062)950-3584, 3585

H.P: 011-614-4160

광주은행: 148-107-307803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ppt://www.kwu.ac.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1. 연수일정

구분	일정
개강일시	중주반 2008. 9. 1(월) 9:30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08. 7.21(월)~2008. 8.30(토)
수업기간	2008. 9. 1(월)~2009. 2.23(월)(6개월/24주)
수강료	₩360,0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화: (062)530-3873~5

H.P: 016-611-1171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ppt://sle.jnu.ac.kr